미국 백인들, 부유해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정치 계급에 관한 전통적인 통념을 뒤집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다.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보다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들도 저소득층 사이에서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를 향한 지지가 한마디로 예전 같지 않았다는 점은 대개 인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진보에서 보수적 색채로 옷을 갈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워싱턴포스트' 의 Larry Bartels와 Katherine Cramer 기자는 지난달 14일 "White people get more conservative when they move up – not down – economically. Here's the evidence."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제 계층의 장기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미국인의 정치적 성향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미시간 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 Joshua Roberts / Reuters)

우리는 같은 사람을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0년 넘게 추적한 몇 안 되는 패널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경제 계층의 장기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직접 살펴봤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수집한 시기가 20세기 후반부였던 만큼 트럼프 현상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경제 상황의 변함에 따라 정치적인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뚜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1973~1982년에는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데 물가도 계속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기에 자료로써 그 가치가 더 컸다.

문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눈에 띄게 보수적으로 변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라도 소득이 오르지 않고 정체된 이들의 성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원래 부자가 더 보수적이고, 돈이 없으면 변화를 원하게 된다는 계급 정치의 전통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반면에 경제가 시원찮으면 집권 여당이 심판을 받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인기가 낮아진다는 시각은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 사정과 정치적인 태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1970년대 경기 침체 시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인종이나 범죄 등에 관한 사회적인 시각도 전반적으로 보수화 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태도와 견해가 바뀌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가계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들의 견해가 가장 많이 보수화 됐다. 이들은 또 다양한 경제적인 주제에 걸쳐 대체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대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거나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것도 이들이다. 이 결과는 지지 정당, 대학 교육 여부, 인종, 성별 등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나타났다.

1982~1997년,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해졌고, 보수화 경향도 다소 누그러지거나 진보적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진보적으로 변했을까? 대부분 부익부 빈익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로 전체 평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들이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커진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사정 변화도 지지 정당과 정당 소속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1973~1982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백인들이 공화당 지지자가 될 확률은 18% 높아졌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실질 소득이 줄어든 백인들이 스스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확률은 1%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이어 1982~1997년, 공화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백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확률은 12%나 높아졌다. 반면 소득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줄어든 이들 사이에서는 공화당 지지세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조사 마지막 해인 1997년, 30년 넘게 조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살게 됐다고 답한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2년간 33%나 낮아졌다. 반대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 살게 됐다고 답한 백인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율은 32년간 고작 4% 높아지는 데 그쳤다.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소외됐다고 느낀 사람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였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이들 사이에서 공화당의 약진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시골에 사는 백인 노동자 가운데는 자신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을 공무원, 이민자, 무슬림, 도시에 사는 좌파 엘리트주의자들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20세기 말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외부인과 낯선 이들을 문화적인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치적인 전략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